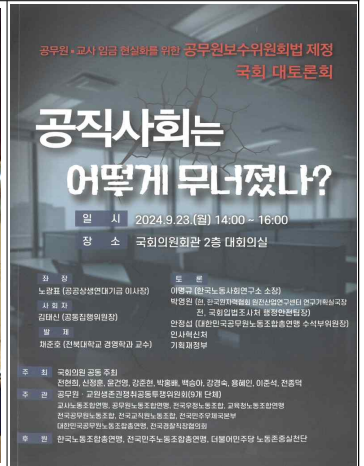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노동단체 손잡고 공무원 임금 현실화 입법투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강교노, 위원장 최승덕)은 23일(월)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 자문 기구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의결기구화하기 위한 공론화의 자리에 함께 힘을 모았다.

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의 임금통제 기구로 전락하여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이탈을 촉진하였다. 공직사회 저임금 고착화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 구조를 혁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용혜인, 이준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교노가 속한 교육연맹을 비롯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9개 단체)가 주관하여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선진 유럽의 공무원임금 결정 제도를 참고하여 **법률상 독립기구의 지위를 가진 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선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발표가 이루어졌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77.4%)는 ‘낮은 보수’ 때문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교노는 공무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 흐름에 동지 여러분들의 호응과 응원을 당부한다.